

윈드 오케스트라 교육의 비교연구: 지원학교와 비지원학교를 중심으로

김 영 식** · 박 기 범***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학생 오케스트라’에 참여 학생들과 비참여 학생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충청지역에 소재한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윈드 오케스트라의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 가운데 230명을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만족도 차원에서 지원학교와 비지원학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악기나 기타시설을 의미하는 물리적 시설에 대한 호감도는 지원학교가 비지원학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원학교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 연습시간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의 정책적 방향이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윈드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교육,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학교, 만족도

차 례

- | | |
|------------|------------|
| I. 서 론 | |
| II. 선행연구 | |
| III. 연구설계 | |
| 1. 자료수집 | 2. 설문지의 구성 |
| 3. 응답자의 특성 | |
| IV. 분석결과 | |
| 1. 기술적 통계량 | 2. 만족도 |
| 3. 물리적 시설 | 4. 연습실태 |
| V. 결 론 | |

**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교신저자)

I. 서론

2010년 7월 7일 이례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브리핑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국내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양 부처가 협력하여,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방안의 발표 이후 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는데 그 성과물이 바로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예술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과거에는 오케스트라(orchestra) 교육이 고급예술의 하나로 치부되면서, 일반 음악시간에서조차 잘 다루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반면, 최근 음악교육의 일선에서는 오케스트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엘 시스템아(El Sistema)의 성공사례가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엘 시스템아는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범죄자 이거나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악기를 다루게 함으로서, 아이들을 교화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 수도 가늠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가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창조적 예술 행위에 있음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했을 뿐 아니라 꿈과 희망을 전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이들 중 소수는 주요한 음악가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¹⁾ 이러한 엘 시스템아의 성공은 엘 시스템아 USA, 엘 시스템아 Canada, 엘 시스템아 Europe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김지연, 정기오, 2012; p18).

둘째, 국가의 정책적 지원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정책기조를 문화융성에 초점을 맞춘바 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에서 문화예술의 평등성(equality)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과거 사교육을 통해 일부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던 것이 ‘꿈의 오케스트라’나 ‘학생 오케스트라’로 교육대상이나 목표가 다양화되었다.²⁾

1)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스타브 두다멜(Gustavo Dudamel)이다. 그는 현재 2009년부터 LA 필하모닉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이다.

2) 교육부(2015)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150개교에서 2014년 985개교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오케스트라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고용 및 수요창출, 후생증대 등이 기대된다. 예컨대, 오케스트라는 실기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실기 선생님 고용이 필수적이다. 악기가 구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악기도 구입해야 할 것이다. 연습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공연장이 있어야 하며,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공연에 대한 관객이 생겨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오케스트라 교육의 확산에는 학계의 연구들도 기여했다. 전인교육을 위해 예술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는 오케스트라 교육이 될 수 있다(Schulze & Rose, 1998). 오케스트라의 교육은 학업성취도나 인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김지연, 정기오, 2012; 홍기원, 2014). 더불어, 오케스트라 교육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비가시적인 효과(invisible effect)가 크기 때문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면,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요한 문제로는 오케스트라 교육의 성과평가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일반화 된 평가지표가 구성되지 않아, 오케스트라의 교육에 따른 순효과(net effect)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오케스트라의 교육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교육목적의 달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오케스트라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때, 단순히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만이 노정되고 있는 것도 한계점이다.

본 연구의 관심도 오케스트라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내용은 기존 연구들과 다음과 같이 차별화 된다.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라고 함은 현악기와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관악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윈드 오케스트라(wind orchestra)를 대상으로 하였다.³⁾ 최근 다양성 측면에서 일반화된 오케스트라보다 이러한 특수한 오케스트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교육부, 2013; 송영국, 2014). 특히 윈드 오케스트라의 행태는 거의 학계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희소성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더불어, 지원을 받는 학교(funded school)와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non-funded school)를 비교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종합하면, 윈드 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은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의 행태가 차이를 보이는데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윈드 오케스트라

3) 지원을 통한 학생 오케스트라 중 특수한 편성으로는 현악 오케스트라(현악기 위주), 윈드 오케스트라(관악기 위주), 타악 오케스트라(타악기 위주), 퓨전국악오케스트라(국악과 서양음악을 접목시킨 형태), 국악 오케스트라 등이 있다.

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학계에 거의 보고가 되지 않으며, 비교연구도 드문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오케스트라 교육의 긍정성을 강건하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선행연구이다. III장에서는 연구설계이며, IV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이다. 마지막으로 V장은 결론이다.

II. 선행연구

오케스트라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오케스트라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교육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에 대한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교육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 투입에 대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요구와 당위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홍기원, 2014, p36).

오케스트라는 개별 악기의 특징들이 하나의 통합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장기 학생들의 인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다. 먼저, 장기범(2005, p5)은 오케스트라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음악적 관점, 자기 발전적 관점, 사회성 발달 관점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한 바 있다. Cutietta(1998, p19)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St. Paul Chamber Orchestra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취적인 태도가 높다고 보고한다. Abeles(2004, p285)도 설문조사를 통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소신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예로서, 직업선택을 예로 들었다. Sours(2009)는 음악의 앙상블 활동이 좋은 인성, 신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정직, 인내 등의 덕목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Torres(2002)는 베네수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엘 시스템아의 효과로 인해 사회적 성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는 엘 시스템아가 시행된 이후 고용이 높아지고, 진학률이 증대되며, 빈곤율이 감소함을 보고한다. Orchkid 프로그램⁴⁾과 엘 시스템을 비교한 연구도 존재한다. 10년 이상 학교를 다닌 25,000명의 학생들은 음악교육을 통해 학교 시험점수의 향상을 보여주었고, 학교 밴드 또는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재, 그리고 일생동안 술, 담배, 마약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도 보고된다(Catterall, 1997).

4) 미국의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운영하는 아동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

양적연구가 아닌 질적연구들로서, 밴드 참가자의 목소리를 담은 Gouzouasis et al(2008, p75)의 연구나, 대단위 표본을 이용한 Adderley et al(2003, p248)의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활동의 참여 동기, 인식, 활동에 대한 가치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도 음악적 개입이 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한 연구나 음악교육으로서의 오케스트라 교육의 동기부여나 성취도 향상에 대한 연구, 예술적 기능의 수행이나 임무완성 능력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등도 보고되고 있다(Shields, 2001; Schmidt, 2005, Wright et al., 2006, 김지연, 정기오, 2012).

국내 오케스트라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2010년 이후 많은 연구가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인성, 성적,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부(2015)에 의하면, 10명 가운데 8명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인성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성원(2013, p157)의 실증연구에서는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이 학생들의 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 가운데 사회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과 유사한 기존연구도 상당히 많다(곽윤정, 2010; 이시중, 2010, 성도의, 김세준, 2012).

또한, 오케스트라 활동 자체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양종모, 박진홍(2011, p149)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가운데 오케스트라 활동을 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대체적으로 높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Rauscher et al.(1993, p611)등이 주장한 모차르트 효과(Mozart effect)가 성립됨을 주장한다. 양종모, 박진홍(2012, p119)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래 활동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기타연구로는 김지연, 정기오(2012), 송영국(2014), 홍기원(2014), 김영은, 이은희(2013)가 있다. 먼저 김지연, 정기오(2012, p212)의 경우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오케스트라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요인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영국(2014, p213)은 표본을 국악 학생 오케스트라의 정책적 효과와 실태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대부분 오케스트라에 대한 구분 없이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그의 연구에는 특별한 표본을 이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홍기원(2014, p35)은 교육평가 관점에서 학교 오케스트라 교육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개인영역의 지표와 사회영역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은, 이은희(2013, p151)는 오케스트라 교육을 치료적 관점과 접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Ⅲ. 연구설계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충청·대전 지역에 속한 6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선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문화적 차이가 나면 학생들의 문화적 의식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인접한 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윈드 오케스트라의 경우 주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총 6개의 학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대상이 되는 학교 가운데 3개의 학교는 교육부의 지원대상인 학교이며, 3개의 학교는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이다.

<표 1> 표본 대상 학교

구분	설립구분	위치	공학구분	지원유무
1	자율형공립고	충남 서산시	공학	유
2	공립고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학	유
3	자율형사립고	대전광역시 서구	남자	유
4	공립고등학교	충남 서산시	공학	무
5	사립고등학교	대전광역시 중구	남자	무
6	사립고등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남자	무

6개의 학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학교마다 50부씩 총 300부를 배부하였다. 불성실응답이나 미응답자는 제외하고, 총 230부가 수거되어 77%(230/300)의 응답률로 나타났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측정된 요인(factor)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크게 3가지 요인이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송영국(2014), 안은미(2015), 윤성원(2013), 양종모, 박진홍(2012), 홍기원(2014), 김영식, 박기범(2015) 등을 참조하였다. 다음은 설문 문항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3가지로 측정하였으며, 학생본인이 느끼는 만족도, 부모님의 학생활동에 대한 만족도, 선생님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각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은 좋은 인성과 함께 적응력을 높게 해 주는 기능이 있다(양종모, 박진홍, 2012; 윤성원, 2013).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학교는 시설이나 교육과정에 있어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 비해 질적인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교사에 대한 만족도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동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물리적 시설에 관한 문항을 2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오케스트라와 같은 음악 활동은 시설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영식, 박기범,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악기 구비 능력과 전체적인 물리적 시설에 관한 두 가지 문항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연습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혹은 무엇을 연습하는지에 대하여 총 3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지원을 받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들의 응답된 문항들에 대하여,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하 α 는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의 기입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의 <표 2>로 정리하였다.⁵⁾

<표 2> 설문지의 문항구성

요인	내용	문항 수	크롬바하 α
만족도	응답자 본인의 만족도	3	0.758
	부모님의 만족도		
	선생님 교육에 대한 만족도		
물리적 시설	악기 구비 능력	2	0.818
	기타 시설		
연습실태	연습의 충실성	3	0.678
	연습의 종류		
	합주곡의 난이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년	4	-
	악기		
	가입동기		
	연주경력		
N		12	-

5) 사전조사시 20문항이었으나, 신뢰도 분석 결과에 위배되거나, 오류문항이 있어 12개의 문항으로 요약하였다.

문항들은 균일한 척도인 Likert 5점 척도가 아닌 문항마다 문항의 주제에 맞게 설정하였다. 이는 사전조사시 학생들이 하나의 번호에 몰아서 체크하는 일들이 자주 발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⁶⁾ 분석방법은 두 집단 간의 빈도들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3>으로 정리하였다. 세부적인 지표보다는 이후의 소절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전체적 합산한 지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먼저, 학년의 분포는 1학년이 가장 높은 61.7%, 2학년이 33%, 3학년이 5.2%로 나타났다.⁷⁾ 악기의 분포는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Clarinet (43명, 19%), Saxophone(37명, 16%), Percussion(34명, 1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동기는 누구의 추천보다는 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지에 가입했다는 의견이 174(75%)명이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 가입했다는 의견도 다수이다(24명, 10%). 악기연주 경력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162명, 70%). 다음으로 중학교부터 시작하였다는 의견도 48명(21%)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응답자들의 특성

문항번호	내용	지원	비지원	계
		빈도(%)	빈도(%)	빈도(%)
학년	1학년	99(70)	43(30)	142(61.7)
	2학년	51(67)	25(33)	76(33.0)
	3학년	2(17)	10(83)	12(5.2)
악기	Clarinet	28(65)	15(35)	43(19)
	Euphonium	6(70)	3(30)	9(4)
	Flute	14(82)	3(18)	17(7)
	Horn	12(63)	7(37)	19(8)
	Percussion	22(65)	12(35)	34(15)
	Saxophone	26(70)	11(30)	37(16)
	Trombone	16(67)	8(33)	24(10)

6) 실제 사전조사에서는 낮은 크로마하 α (0.2-0.6) 값이 관측되었지만, 문항의 수준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나서 크로마하 α 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와 관련된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7) 응답자들 가운데 3학년의 비중이 입시로 인해 적게 나타났다.

문항번호	내용	지원	비지원	계
		빈도(%)	빈도(%)	빈도(%)
	Trumpet	19(60)	12(40)	31(14)
	Tuba	6(50)	6(50)	12(5)
	Double bass	1(50)	1(50)	2(1)
	etc	2(100)	0(0)	2(1)
가입동기	선배	5(60)	3(40)	8(3.5)
	친구	17(80)	3(20)	20(8.7)
	부모님	4(100)	0(0)	4(1.7)
	선생님	8(30)	16(70)	24(10.4)
	본인희망	118(70)	56(30)	174(75.7)
악기경력	유치원	3(75)	1(25)	4(1.7)
	초등학교	12(75)	4(25)	16(7.0)
	중학교	34(70)	14(30)	48(20.9)
	고등학교	103(64)	59(36)	162(70.4)
N(%)		152(66.1)	78(33.9)	230(100)

IV. 분석결과

1. 기술적 통계량

응답자 230명의 대한 기술적 통계량은 다음의 <표 4>로 나타내었다. 먼저, 만족도에 대한 통계량이다. 오케스트라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190명(약 83%)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만족도는 학생의 만족도 보다는 낮지만 절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0명, 57%). 이는 부모님들도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반대보다는 지지를 보내는 부모가 많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51%(118명)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물리적 시설에 관한 문항에 대한 기초 통계량이다. 악기보유에 있어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보급된 악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0명, 87%), 개인악기의 보유자는 30명(13%)이다. 직·간접적인 환경(연습실, 기타 환경)에 관한 만족도 설문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은 104명(45%)로 나타났다. 중립적인 입장인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107명(48%)이 그렇게 대답하였다. ‘불만족한다’는 의견도 19명(8.3%)로 조사되었다.

연습실태의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나 연습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30분 이내(87명, 37.8%)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다음으로 1시간(74명, 32.2%), 2시간(44명, 19.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연습시 개인연습보다는 주로 합주연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명, 70%). 마지막으로 합주곡에 대해서는 쉽다는 의견보다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12% < 24%).

<표 4> 전체빈도 분석

대분류	소분류	내용	빈도(%)
만족도	학생의 만족도	만족한다.	190(82.6%)
		보통이다.	36(15.7%)
		불만족한다.	2(0.9%)
		잘 모르겠다.	2(0.9%)
	부모님의 만족도	만족한다.	130(56.5%)
		보통이다.	89(38.7%)
		활동을 모른다.	7(3%)
		반대한다.	4(1.7%)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118(51.3%)
		보통이다.	80(34.8%)
		불만족한다.	12(5.2%)
		잘 모르겠다.	20(8.7%)
물리적 시설	악기보유	개인악기	30(13%)
		학교악기	200(87%)
	시설	만족한다	104(45.2%)
		보통이다.	107(46.5%)
		불만족한다.	19(8.3%)
연습 실태	하루연습시간	안함	15(6.5%)
		30분 이내	87(37.8%)
		1시간	74(32.2%)
		2시간	44(19.1%)
		3시간	6(2.6%)
		4시간 이상	4(1.7%)
	연습의 종류	개인기초연습	53(23%)
		합주곡연습	161(70%)
		기타	16(7%)
	합주곡의 흥미	쉽고 재미있다.	28(12.2%)
		보통이다.	148(64.3%)
		어렵다	54(23.5%)
SUM			230(100%)

2. 만족도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로 정리하였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원학교의 경우 84%(127명), 비지원학교의 경우 81%(63명)이 현재 오케스트라 교육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대답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채 1%가 되지 않았다. 현재의 오케스트라 교육이 학생들에게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통계량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치를 보인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χ^2 통계량이 0.866으로 관측되었으며, 이러한 통계량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관련 내용을 보면 지원학교나 비지원학교의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지원학교의 경우 54%(42명), 지원학교 58%(88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통적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지지(support)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님의 지지가 동반된 학생은 자기효능감 상승으로 인한 음악적인 활동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박지연, 2009; p164)와 유사한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출강하는 음악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이다.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비지원학교에서는 46%가 만족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지원학교는 더 높은 수치인 54%가 선생님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원받는 학교가 양질의 선생님을 고용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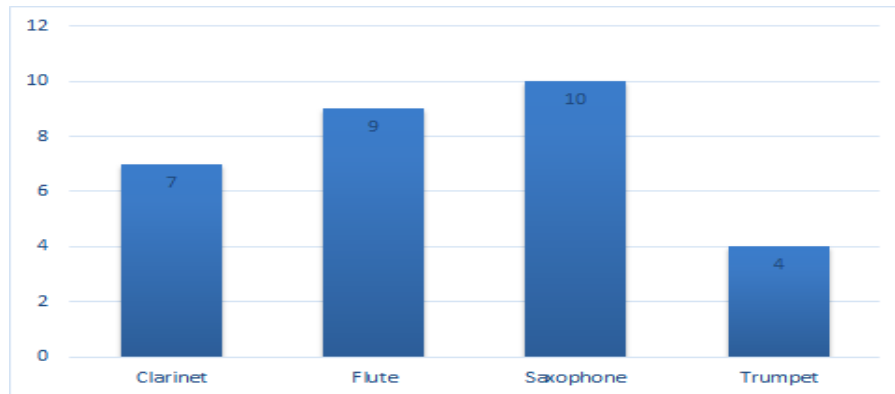
종합하면, 만족도는 지원학교가 비지원학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치가 나타났다. 오케스트라 활동에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이것이 지원학교나 비지원학교의 여부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5>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

분류	내용	지원학교	비지원학교
		빈도(%)	빈도(%)
학생의 만족도	만족한다.	127(84%)	63(81%)
	보통이다.	24(16%)	12(15%)
	불만족하다.	1(1%)	1(1%)
	잘 모르겠다.	0(0%)	2(3%)
	Sum	152(100%)	78(100%)
$\chi^2 = 4.182, p\text{-value} = 0.273 \text{ } Df = 3$			
부모님의 만족도	만족한다.	88(58%)	42(54%)
	보통이다.	57(38%)	32(41%)
	활동을 모른다.	5(3%)	2(3%)
	반대한다.	2(1%)	2(3%)
	Sum	152(100%)	78(100%)
$\chi^2 = 0.886, p\text{-value} = 0.829 \text{ } Df = 3$			
학교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82(54%)	36(46%)
	보통이다.	55(36%)	25(32%)
	불만족하다.	8(5%)	4(5%)
	잘 모르겠다.	7(5%)	13(16%)
	Sum	152(100%)	78(100%)
$\chi^2 = 9.712, p\text{-value} = 0.021 \text{ } Df = 3$			

3. 물리적 시설

다음의 <표 6>은 물리적 시설에 관한 응답자들의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악기 소유여부에 대한 물음이다. 개인악기 또는 학교악기(학교에서 보급되는 악기)로 분류 할 수 있다. 비지원학교에서는 학교악기가 대부분이지만, 지원학교는 개인악기가 18%(28명)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개인악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공자이거나 혹은 음악에 애착을 갖고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크다. 지원학교에서는 개인악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감안할 때, 지원학교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아래의 [그림 1]은 개인악기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로 대중화가 높은 악기들이며, 금관악기 보다 목관악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개인악기의 분포

다음으로 전체적인 시설의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에 대하여, 지원학교 학생들은 절반이상이 만족한다고 대답(51%, 78명)했지만, 비지원학교의 학생들은 26명(38%)만이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지원학교가 비지원학교에 비해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환경에서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고, 이러한 물리적 환경은 교육성으로 귀결됨을 감안할 때, 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악기나 기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지원학교가 비지원학교에 비해 높은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시설 투자가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석결과

분류	내용	지원학교	비지원학교
		빈도(%)	빈도(%)
악기	개인악기	28(18%)	2(3%)
	학교악기	124(82%)	76(97%)
	Sum	152(100%)	78(100%)
$\chi^2 = 11.428, p\text{-value } 0.000 \text{ } Df=1$			
시설	만족한다	78(51%)	26(33%)
	보통이다.	59(39%)	48(62%)
	불만족한다.	15(10%)	4(5%)
	Sum	152(100%)	78(100%)
$\chi^2 = 10.810, p\text{-value } 0.000 \text{ } Df=2$			

4. 연습실태

지원학교와 비지원학교의 연습실태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7>로 나타내었다. 먼저 하루 연습시간에 대한 통계량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구간에서 비지원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30분 이내의 연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7명, 73%). 지원학교의 경우는 1~2시간 내에 연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9명, 66%). 이 같은 결과는 지원학교의 학생들이 비지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연습에 더 열정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의 통계결과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지지한다.

연습시에 어떠한 종류의 연습을 하는지 대한 문항이었다. 통계량 값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개인기초연습은 비지원학교(14%>11%)의 학생들이 더 많은 연습을 하며, 합주곡연습은 지원학교가 비지원학교에 비해 더 많은 연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8%>58%). 이는 지원학교가 비지원학교에 비해 더 많은 합주곡 연습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확장하여, 합주곡에 대하여 지원학교 학생들이 비지원학교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흥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26%>18%).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가 아니므로 결과해석에는 제한적이다.

종합하면, 지원학교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 연습시간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지원학교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협동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합주를 수행하며, 이는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연습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분류	내용	지원학교	비지원학교
		빈도(%)	빈도(%)
하루 연습 시간	안함	14(9%)	1(1%)
	30분 이내	30(20%)	57(73%)
	1시간	57(38%)	17(22%)
	2시간	42(28%)	2(3%)
	3시간	6(4%)	0(0%)
	4시간 이상	3(2%)	1(1%)
$\chi^2 = 67.846, p\text{-value} = 0.000 \text{ } Df = 5$			
연습의 종류	개인기초연습	17(11%)	11(14%)
	합주곡연습	104(68%)	44(56%)
	기타	31(20%)	23(29%)
$\chi^2 = 8.748, p\text{-value} = 0.003 \text{ } Df = 1$			

분류	내용	지원학교	비지원학교
		빈도(%)	빈도(%)
합주곡의 흥미	쉽고 재미있다.	39(26%)	14(18%)
	보통이다.	98(64%)	63(81%)
	어렵다	15(10%)	1(1%)
$\chi^2 = 3.453, p\text{-value} = 0.178 \text{ } Df=3$			

V. 결 론

본 연구는 교육적 성과측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원 받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지역의 6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230명의 응답자들에게 현재 받고 있는 오케스트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첫째, 많은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케스트라의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원유무를 통제했을 때, 지원에 따른 만족도의 효과는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원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물리적 환경을 더 좋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원에 대한 교육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지원학교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 연습시간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의 정책적 방향이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양지해야 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계는 학생들의 교육목적에 맞는 커리큘럼의 개발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커리큘럼이 단조롭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 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학계는 학생 오케스트라의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산업계에서도 학생 오케스트라의 창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기부 문화가 진전되면서 문예창작에 대한 기부가 늘고 있지만, 형식적인 지출이 아닌 진정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와 면밀한 교육평가를 위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개발과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교육의 경험이 부족한 학교가 모든 교육을 감당하기 보다는 기성 오케스트라와 협약을 맺고 교육에 대한 인력을 지원 받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오케스트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성 오케스트라의 운영 및 관리 노하우 등의 협력 그리고 인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재능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오케스트라의 교육효과에 대한 성과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고, 지원 금액은 얼마가 적절한 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문항에 의한 연구모형의 구축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유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이에 따라 결과해석에 있어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며, 본 논문의 결과가 향후 오케스트라 교육의 활성화에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윤정 (201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우울성향·자아상·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7(1), 1-14.
- 교육부 (2013), 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4월 3일 보도자료, 서울: 저자.
- 교육부 (2015), 학생 10명 중 8명, 학교예술활동을 통해 긍정적 인성 변화, 1월 28일 보도자료, 서울: 저자.
- 김지연, 정기오 (2012), 한국의 학교오케스트라 활동체제 연구, **예술교육연구**, 10(3), 17-38.
- 김영은, 이은희 (2013), 학생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5(2), 121-152.
- 김영식, 박기범 (2015), SERVQUAL을 이용한 음악교육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공학** 25, 215-232.
-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 분석, **음악교육공학**, 8, 153-167.
- 성도의, 김세준 (201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술경영연구**, 23, 91-114.
- 송영국 (2014), 국악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실태분석, **한국음악연구**, 56, 211-237.
- 안은미 (2015), 지역사회 오케스트라 교육활동과 빈곤아동 발달에 관한 혼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양종모, 박진홍 (2011),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공학**, 12, 149-159.
- 양종모, 박진홍 (2012), 중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 변화 연구, **음악교육공학**, 14, 119-132.
- 윤성원 (2013),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이 학생의 인성에 끼친 영향, **음악교육공학**, 16, 137-159.
- 이시중 (2010), 통합적 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1-23.
- 장기범 (2005), 오케스트라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음악과 비평**, 4(4), 5-13.

- 홍기원 (2014),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과평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오케스트라교육 사업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 *예술경영연구*, 30, 35-59.
- Abeles, H. (2004), The effect of three orchestra/school partnerships on students' interest in instrumental music instruc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2(3), 248-263.
- Adderley, C., Kennedy, M. & Berz. W. (2003), A home away from home: The world of the high school music classroom.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3), 190-205.
- Catterall, J. (1997), *Involvement in the arts and success in secondary school*, The UCLA Imagination Project, Los Angeles.
- Cutietta, R. A. (1998), Does orchestra education in schools make a difference?, *General Music Today*, 11(2), 17-20.
- Gouzouasis, P., Henrey, J. & Belliveau, G. (2008), Turning points: a transitional story of grade seven music students' participation in high school band programmes, *Music Education Research*, 10(1), 75-90.
- Schmidt, C. P. (2005), Relations among motivation, performance achievement, and music experience variables in secondary instrumental music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2), 134-147.
- Schuze, G. & Rose, A. (1998), Public orchestra funding in Germany :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2(4), 227 - 247.
- Shields, C. (2001), Music education and mentoring as intervention for at-risk urban adolescents: their self-perceptions, opinions, and attitud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3), 273-286.
- Sours, J. P. (2009), *An examination of embedding character education into the daily functions of high school instrumental music ensembles*. Dissertation, George Fox University. 2009, Oregon.
- Torres, L. E. (2002), *Ejecucion de la fase 2 del plan de seguimiento y evaluacion de impacto del Sistema nacional del or questas y coros de Venezuela: Informe final*. Universidad de Los Andes Facultad de Medicina Centro de Investigaciones Psicologicas, Merida, Venezuela.
- Rauscher, F. H., Shaw, G. L., & Ky, K. N. (1993), Music and spatial task performance. *Nature*, 365(6447). 611.

Wright, L., Ramona, J. & Alaggia J. S. (2006), Community-based arts program for youth in low-income communities: a multi-method evaluation, *Chil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3(5-6): 635-652.

* 자료수집 협조: 충북여자고등학교 이기혁 선생님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Education of Wind
Ensemble : Focused on between Funded
School and Non-Funded School**

Young Sik Kim · Ki Bum Park

This study explored implications of “Youth Orchestra” which is the most typical art education projects supported by Korea. To meet this purpose, we observed the wind orchestras located in Chungcheong region and 230 students from six different schools. The result is as follows. At the satisfaction level, first of all,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oth students from funded school and non-funded schools. This suggests that supporting program has an influence on performance via music, but the satisfaction doesn't differ whether it's funded or not. Secondly, funded schools showed a higher level of positive feeling about instruments and other facilities than non-funded schools. It implies that educational outcome of students can be maximized by investing cultural facilities with financial support.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erforming ensemble can induce the team work spirit which can be embodied by orchestra activity and it ultimately brings out improved skills of students. These days, as the education of culture and art is expanding, the current political approach can provide the necessity of political support towards it at the advanced education.

Key words: wind orchestra, orchestral education, youth orchestra, funded school, satisfaction.

투고일: 2015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6년 1월 19일(1월 24일), 게재확정일: 2월 2일